

# 경마는 멈춰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는다

마방, 경주마 컨디션 유지 위해 최선 기수들은 기승술·체력훈련에 매진 출발·주행심사 등 안전점검 강화도



한국마사회 말보건원 수의사들이 5일 경주마 앞다리를 치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경마장은 휴장 중이지만 경주마를 관리하고 경마 재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방역활동을 비롯해 경마시행 준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울, 부산경남, 제주의 경마장은 임시 휴장했다.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 홍콩 등에서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경마팬들의 입장을 전면 통제하며 무관중 경마를 시행 중이다. 온라인 발매가 활성화돼 팬들이 직접 경마장을 찾지 않아도 경마를 즐길 수 있다. 현장 발매만 가능한 우리나라는 무관중 경마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3월의 첫 주말, 관중으로 꽉 차 있어야 할 관람대는 텅 비었다. 하지만 언젠가 재개될 경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분주하다.

## ●경주 재개 준비에 여념 없는 경마장 사람들

경마경주는 시행되지 않아도 마방에 살고 있는 말들의 컨디션은 유지되어야 한다. 경주마들은 사양관리나 훈련에 조금만 소홀해도 경기력이 눈에 띄게 저하된다.

1981년부터 기수생활을 시작해 올해로 40년을 경마장과 함께하고 있는 서울 경마장 1조 박종곤 조교사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과를 물었다. 박 조교

사는 “하루 일과는 변함없이 아침 6시에 시작된다. 주행심사도 매우 똑같다. 당일 경기만 없을 뿐이다. 다만 워낙 전염력이 큰 질병이라 각 마방은 초긴장 상태다.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마방의 조교사와 모든 관리사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말밥은 누가 주냐’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교사협회에서는 비상시에 대비한 매뉴얼을 가동 중이

다”라고 대응상황을 전했다. 박태중, 문세영 기수의 뒤를 이어 한 국 경마의 차세대 주자로 손꼽히는 93년생 이현종 기수는 임시 휴장 기간 어떻게 지낼까. 그는 “갑작스러운 시행 중단으로 당혹스럽긴 했지만 오히려 쉬어 가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특히 경마는 0.1초차로 순위가 뒤바뀌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서 실수 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또 기초

체력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기승기에 올라가 연습하는 것도 빼놓지 않고 있다. 휴장 기간 동안 기승술을 더욱 보강해 기다려준 팬들에게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경마시행기관인 한국마사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관람대와 마사지역에 방역활동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전 사업장의 방역태세를 점검 중이다. 이번 휴장에 따른 입점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경마계획 변경안을 놓고 경마유관단체와의 협의도 한창이다.

또한 경주마들의 안전한 훈련을 위해 매일 경주마 상태를 관리하고, 출발심사, 주행심사 등을 평소와 같이 시행해 경주마들의 출전 준비태세를 확인하고 있다. 전산·방송시스템과 경마시행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각 부서별로 경마 재개에 대비한 활동에 여념이 없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무엇보다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휴장 기간 중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비대위 체제를 가동해 변화하는 모든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휴장 기간에도 더욱 멋진 경주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주마관계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마사회TV·KRBC... 집에서 즐기는 경마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경마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경마팬들이 경마경주 임시중단 및 전 사업장 휴장으로 인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고,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가득하다.

### ●다양한 주제를 재미있게 '마사회TV'

올해 채널을 오픈한 마사회TV는 기존 마(馬)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공헌, 지사 문화센터, 스포츠단 등 마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아우른다. 현재 아이돌스타선수권대회 승마 비하인드 영상, 유도 김재범 코치와 함께하는 홀트레이닝 등의 콘텐츠가 업로드 되어 있다. 향후 사회공익승마, 대국민 행사, 공모전 등 다각화된 콘텐츠가 제작될 예정이다.

### ●생생한 국가대표 경마방송 'KRBC'

KRBC는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경마방송이다. 각종 경주 영상은 KRBC RACE에서, 기수 및 조교사 인터뷰와 경주 비하인드 등 기획 콘텐츠는 KRBC 채널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요 대상경주 해설방송 등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해 박진감 있는 경마를 고객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준다.

### ●온가족 나들이 즐기는 방법 '렛츠런파크'

레저·취미공간으로의 렛츠런파크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이 실제 경마공원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콘텐츠를 다룬다. 벚꽃축제, 경마공원 콘서트와 같은 주요 행사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경남·제주 경마공원의 축제, 볼거리, 먹거리 등 렛츠런파크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정용운 기자

## '투데이', 킬린 핸디캡 준우승 두바이월드컵카니발 이번 연출

국산 경주마 '투데이'(거, 6세, 마주 고 정수, 조교사 김영관)가 2월 27일(현지시간) 두바이 메이던 경마장에서 열린 2020년 두바이월드컵카니발 킬린 핸디캡 경주에서 준우승했다. 국제레이팅도 95에서 96으로 상승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활약 중인 투데이는 2018년 싱가포르 원정에도 출전해 3위에 입상한 바 있다.

킬린 핸디캡 경주는 2000m 더트 주로 경주로 총 상금 17만5000달러(약 2억 원)를 두고 치러졌다. 국제레이팅 90 이상 경주마만 출전할 수 있어 능력이 검증된 각국의 기대주들이 경쟁했다. 특히 미국의 '파시모니'(수, 4세, R100), 지난해 코리아 컵 3위 입상마인 '엠베서도리얼'(거, 6세, 영국, R103) 등이 우승후보로 꼽혔다. 두바이월드컵카니발 출전자 중 유일한 국산 경주마인 투데이는 경기 전 예상 인기도에서 12마리의 출전자 중 가장 낮았다.

하지만 투데이는 뛰어난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자전을 펼쳤다. 출발번호(4번)

이점을 활용해 출발 즉시 재빠르게 최선두에 자리 잡았다. 강력한 우승후보 파시모니와 엠베서도리얼 등이 투데이 뒤에서 선입권을 구성하며 경주를 이끌었다. 투데이는 2000m 장거리 경주에서 페이스를 잃지 않고 선두를 유지하다가 막판 직선주로에서 발 빠른 추임을 보여준 파시모니에게 아쉽게 1위를 내주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킬린 핸디캡 경주는 한국 경주마와 인연이 깊다. 2016년에는 '석세스스토리'가 입상했으며, 지난해에는 '돌풍'이 우승했다.

한편 2020년 1월 2일부터 시작된 두바이월드컵카니발은 두바이레이싱클럽에서

주관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메이던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고수준의 경마 대회다. 9주간 두바이월드컵카니발(1월 2일~2월 27일)과 준결승 격인 슈퍼세터데이(3월 7일), 결승전 성격의 두바이월드컵(3월 28일)으로 치러진다.

이번 두바이월드컵카니발에 출전한 한국 원정마는 투데이와 함께 '백문백담', '그레이트킹', '블루치퍼'까지 총 4두다. 그레이트킹은 23일 더트주로 2000m 경주에서 3위에 입상했다. 블루치퍼는 두바이 마방 일사 후 수송열 회복 관계로 이번 시즌 경주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정용운 기자



## 축구팬 54% “맨체스터 더비 승자는 맨시티” 케이토토 “적중 상품 환급금 찾아가세요”

### 축구토토 승무패 10회차 중간집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7일부터 9일까지 벌어지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7경기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10회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13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54.03%가 원정팀 맨시티의 우세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양팀의 무승부 예상은 23.05%를 차지했고, 나머지 22.92%는 홈팀 맨유의 승리에 투표했다.

맨체스터를 연고로 하고 있는 두 팀은 모두 EPL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맨시티는 승점 57점(18승3무6패)으로 선두 리버풀에 이어 리그 2위에 자리하고 있고, 맨유는 승점 42점(11승9무8패)으로 5위를 기록 중이다.

회색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펼치는 맨시티는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시즌 맨유의 리그 첫 맞대결에서는 1-2로 패해 열세를 보였다. 다만, 핵심선수들의 부상은 이번 경기의 한 가지 변수

가 될 전망이다. 맨유는 폴 포그바와 마커스 래쉬포드가 이번 경기에 뛸 수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다니엘 제임스, 완-비카도 부상이 의심되고 있어 출장이 불투명하다.

맨시티 역시 지난달 27일 수비의 핵심인 에르리크 라포르트가 부상을 당해 경기에서 이탈했던 르로이 사네의 복귀 가능성이 높고 있는 것은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다.

이어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76.05%의 투표율을 기록해 완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양팀의 무승부 예상과 노리치시티(리그 20위) 승리 예상은 13.93%와 10.02%로 나타났다. 더불어 안방 경기를 앞두고 있는 리그 6위 울버햄프턴(72.07%)과 4위 첼시(64.72%)도 높은 지지를 받아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안방에서 셀타데비고를 맞이하는 헤타페의 승리 예상은 76.48%로 집계돼 이번 회차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양팀의 무승부 예상과 셀타데비고의 승리 예상은 각각 13.79%와 9.73%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리그 선두로 올라선 레알마드리드도 74.94%의 투표율을 얻어 순위승 승리를 거둘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환급시효 기간이 임박한 적중상품 및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발 빠른 수령을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품이나 발매가 취소되어 환불 처리되는 경우 환급 시효인 1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최위 단계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게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무관중 경기를 이어가던 한국배구연맹(KOVO)이 2일 남자프로농구에 이어 리그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프로야구는 14일 개막 예정이던 시범경기를 전격 취소했고, 프로축구는 지난달 29일로 잡아났던 시즌 개막 날 짜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처럼 국내 스포츠계 일정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발행된 상품이 취소되거나 환불 처리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을 구매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토토 언더오버 10회차 발매 축구 5경기·NBA 2경기 대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의 인기 배당률 게임 '토토 언더오버'가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회차 발매를 시작한다.

3000원대의 평균참여금액으로 소액 베팅 문화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는 '토토 언더오버'는 승패를 맞히는 방식에서 벗어나 축구와 농구, 야구, 배구 등을 대상으로 5경기 혹은 7경기를 선정해 홈팀과 원정팀 각각의 최종득점이 주어진 기준 값과 비교해 낮은지, 높은지 등 다양한 상황을 예상해 맞히는 배당률 게임이다. 투표 방식의 경우 주어진 각 팀의 최종득점이 기준 값 미만이라면 언더(U)에 표기하면 되고, 초과한다면 오버(O)를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을 살펴보면, EPL에서는 첼시-에버턴(2경기)전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체스터 시티(3경기)전이 선정됐고, 라리가에서는 바야르리드-빌바오(1경기)전과 비야레알-레가네스(4경기), 베티스-레알 마드리드(5경기)전이 뽑혔다. 마지막으로 NBA에서는 보스턴-오클라호마 시티(6경기), 댈러스-인디애나(7경기)전이 토토 팬들을 찾아간다.